

제2공항 건설 계획 오늘 최대 분수령

한라일보 등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오후 8시 발표
국토부 검증 후 '여러 경우의 수' 판단... 귀추 주목

제2공항 건설사업 최대 분수령이 될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된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가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민일보·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JBS·KBS제주·KCTV제주방송·연합뉴스)는 18일 오후 8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2개 여론 조사기관별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전체 제주도민과 성산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설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의 뉘를 제주도에 미룰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한라일보와 통화에서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에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 도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반대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이는 국토부에서 심사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가 수년째 지속돼온 도민 사회 갈등을 해소할지, 불씨를 키울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2공항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찬성 운동을 주도해 온 오병관 제주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책 사업을 여론조사에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추위 녹이는 어묵 국물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가운데 눈보라까지 휘날린 17일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따뜻한 간식을 구입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근기자

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정부가 정한 국책 사업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상민기자

지역 국회의원들 제2공항 갈등조정 행보

송재호 의원, 국무조정실장에 제도적 장치 주문

18일 공개되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 사회의 대응적 수용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도민사회 화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가 나오면 그간 찬반 언급을 자제해 왔던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입장을 밝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 국회의원들은 일각에서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들은 지난 몇 년 간 제2공항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을 이번 도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매듭 짓고 함께 제주의 발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도민 사회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장 표명을 통해 정부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과 도민사회에는 화합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한 국책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필요하다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서 다룬다

의결시 24일 법사위·26일 본회의서 처리
추가 진상조사 야당 수정안 제기 가능성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다. 반면 의결이 이뤄지면 개정안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년만에 이뤄지는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공신력 있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추가진상조사 조항과 관련해서는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상금 등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

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신기호 했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 수형인은 제주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은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개정안 수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의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심사 기능이 아닌 진상조사 업무가 부여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직접 추가 진상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알림

한라일보는 오는 2월 18일 갤러리 ED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로 문창배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관념적 사실주의라는 자신만의 독창적 작품 세계관을 가진 문창배 작가의 지난 4년간 미발표된 작품 30여점이 선보입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시기간 2월 18일(목) - 4월 16일(목)

전시오픈 2월 1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라일보사 1층 갤러리 ED

문의 ☎ 064) 750-2543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세외카페

유도동힐하리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